

# '4대 종교 성지' 영광으로 봄 힐링여행 떠나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신유박해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영광성당



아월교회 순교기념관

명품 4대종교 성지 신령스러운 빛의 고장 '영광(靈光)'. 영광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광군은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고장이다. 호남의 명찰 불갑사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원불교 발상지인 영산성지, 조선시대 신유박해 천주교 순교지, 6·25 당시 교회 탄압에 항거해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개신교 순교지 등이 모두 이곳 영광에 있다.

이 때문에 영광군은 4대 종교 정신문화의 성지이자 종교를 테마로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봄, 종교문화의 모든 면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영광으로 힐링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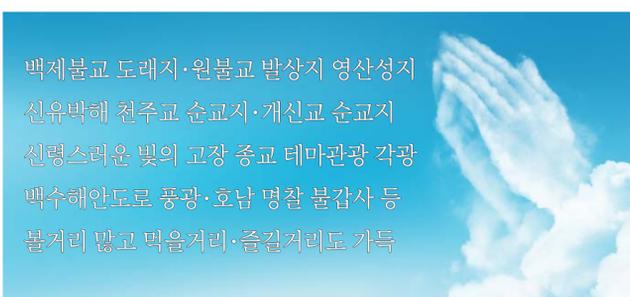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불갑사=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는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승 마라난타가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법성포에 자리잡고 있다.

간디라 양식의 유물관과 국내에서는 유일한 4면 불상 등 다양한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법성면 진내리 좌우도 일원에 연면적 1만3745㎡를 개발해 마라난타상, 부유루, 기념관, 테크, 기념광장 등의 시설물이 있다.

이와 함께 호남의 명찰로 유서 깊은 고찰인 불갑사는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인도 승려 마라난타 존자가 법성포에 들어와 불갑산에 처음으로 세운 절이다.

일주문을 지나 상록수가 호위하는 오솔길을 올라 만나는 불갑사의 대웅전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창살을 가득 채운 연꽃무늬와 조선 중기 이후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대웅전(보물 제830호)을 비롯한 팔상전, 칠성각, 일광당, 명부전, 만세루, 범종루, 향로전, 천왕문(전남유형문화재 제159호) 등이 대표 유물로 꼽힌다.

◇백수길영리 원불교 영산성지=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는 영광에서 나고 자랐다.



백제불교 도래지·원불교 발상지 영산성지  
신유박해 천주교 순교지·개신교 순교지  
신령스러운 빛의 고장 종교 테마관광 각광  
백수해안도로 풍광·호남 명찰 불갑사 등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즐길거리도 가득

영산성지는 소태산이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을 양성한 곳이다.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가 20여년의 구도와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원불교 발상지인 셈이다. 영산성지 내에는 대종사의 생가, 기도터인 삼발재, 마당바위, 대각을 이룬 노루목,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막아 이룬 정관평 방언담 등과 함께 원불교 재단의 영산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원불교 100주년을 맞아 원불교 성지와 연계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세계화하고 명산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이 문을 열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영산성지는 백수해안도 길목에 있어 바다와 산, 길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영광성당'=1937년 설립된 영광성당의 역사는 올해로 82년째다.

하지만 1801년 신유박해 시기에 영광에서 이화백, 양반 오씨 2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것을 보면 천주교 신앙공동체(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가 설립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화백과 양반 오씨의 참수터는 성당 앞 도동리 석장승(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91호)이 있는 자리로 추정한다.

이에 영광성당은 지난해 분당 설립 80주년을 맞아 영광의 순교자와 유배자를 기억하고, 천주교 순교역사와 순교정신을 배울 수 있는 순교자기념관을 개관했다.

순교자기념관은 영광의 6명의 순교자와 3명의 유배자(이종집, 남조이, 홍순희), 초기교회 신자 2명(윤중백, 김득겸)을 기리는 공간이다.

이러한 영광 천주교 박해의 역사와 영광의 순교자들을 기념성당 내 스테인드 글라스 대작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천주교성지순례 코스에 포함돼 매년 수많은 순례객이 방문하고 있다.

◇세계 교회역사에 기록된 개신교 순교지=영광군 영산면 내 개신교 성지는 세계 교회역사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순교지로 꼽힌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교회탄압에 항거해 신앙을 지키려다 194명(영산교회 77명, 아월교회 65명)의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다.

영광에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 194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영산은 국군과 북한군의 정치적 갈등이 심했는데 특히 북한군은 공산주의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학살했다.

교인들은 구덩이에 산 채로 매장되거나

죽장에 찢려서 혹은 몽둥이질로 죽음을 맞았고, 몸에 무거운 돌을 매단 채 손발이 묶여 인근의 설도 앞바다에 산 채로 수장되기도 했다.

영산교회와 아월교회에서는 학살 당시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영산면 아월교회에는 65인의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기념관과 종탑이 있으며 십자가 조각공원, 순교 기념탑 등과 함께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교회식당 등도 갖추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영광군은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고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4대 종교 성지가 한 곳에 모인 지역"이라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4대 종교문화와 함께 영광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기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원불교 영산성지



영광 불갑사 경내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러시아산 Siberian Chaga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결건조 농축분말

Vitamin House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